

웰빙시대, 산소발생기 관심 폭증

특허청, 2000년 이후 특허출원 급증 ... 시장규모 3000억원 예상

최근 들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소발생기에 대한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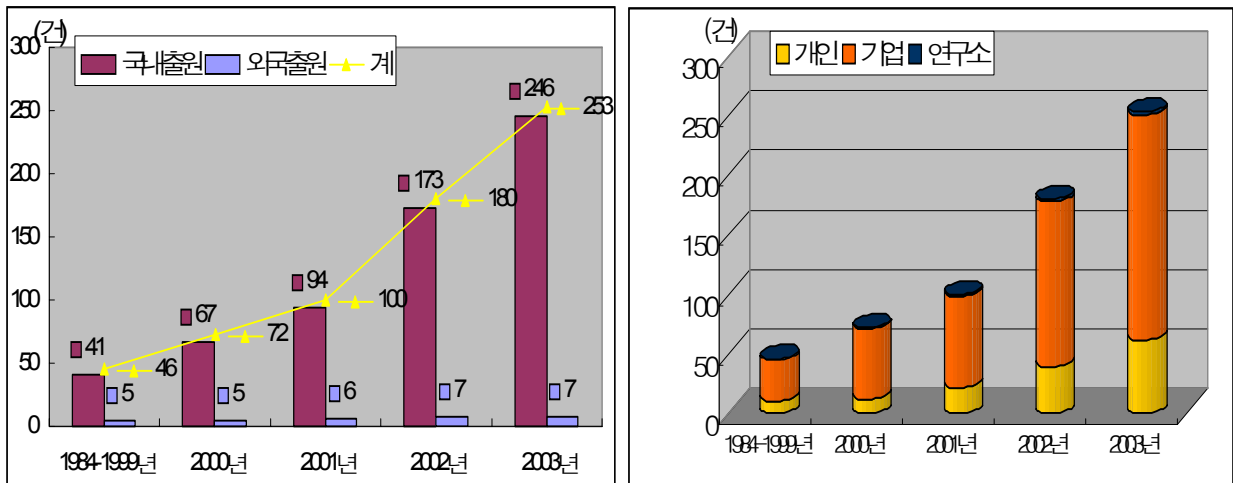
특허청에 따르면, 1984-2003년 산소발생기 관련특허 출원이 총 253건에 달했으며 2000-03년 4년간 특허 출원이 207건으로 총 출원건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내국인 출원이 97%인 246건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관련기업의 출원이 189건으로 7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개인 출원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인의 산소발생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벤처 소기업의 시장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소발생기는 응급환자의 치료용이나 폐기물처리 등에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산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산소발생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산소방(房), 산소카페, 산소휴게실, 산소 바(Bar) 등 산소를 테마로 한 업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산소발생기 시장규모는 2001년 100억원 미만에서 2003년 10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2004년에는 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소발생기 관련특허 출원동향(1984-2003)



한편, 산소는 공기속에 20.9% 포함돼 있는데 산소의 농도가 19-20%이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심하면 두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4% 이하이면 4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반면, 30%까지는 산소의 농도 증가에 비례해 운동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06/24>